

# 신동엽 시에서 지시사의 한정 지시와 강조 기능

김 흥 수(국민대)

## 〈목 차〉

1. 서론
2. 일상어 지시사의 강조 기능
3. 한정 지시 기능
4. 강조 기능
5. 결론

## 1. 서론

작가나 작품에 대해 어학적으로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점들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연구의 성격과 목적이 어학 쪽인지 문학 쪽인지 혹은 어문학에 두루 관련되는지, 그 어느 쪽일 경우 구체적 관점과 문제의식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 둘째는 어떤 작가나 작품 또는 부류를 대상으로 하는가, 그 선택 동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 셋째는 어떤 언어 현상, 어떤 논점을 다루는가, 그 동기와 의의는 무엇인가. 넷째는 이런 연구 목적과 대상에 비추어 어떤 이론과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의 연구 목적, 대상, 방법을 정리해 본다. 이 글은 어학의 관점에서 특정 시인의 작품群을 살펴 일상어 문법의 연장선에서 언어 이해의

폭을 문학 언어에까지 넓히고자 한다. 시에서 일상어 현상과 문법 논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특화, 일탈되는지, 시 특유의 언어 현상과 논리는 어떻게 나타나며 이를 어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 논의한다. 이 같이 일상어와 문학어의 관련과 차이를 살펴 일상어 문법과 쓰임을 점점, 보완하고 문학어의 특성에 대한 어학적 접근법을 모색한다. 필자는 일찍이 줄고(1984)에서 김수영 시 언어의 시문법적 특징과 詩作에서의 언어 사용 사례를 살폈었다. 그런데 그 때에는 일상어 문법의 특화, 일탈 면과 특정 시인 시 언어의 파롤적 측면에 더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 글에서는 일상어 문법과 시문법의 관련, 그 랑그적 측면이 특정 시인 언어의 파롤로 실현되는 과정에 중점을 둘 것이다.

신동엽 시는 意識과 傳言이 강하면서도 언어·형식상의 특징과 효과도 뚜렷한 편이다. 내용 표현 면에서 公的 전언과 私的 내면, 서사와 서정, 理智와 정서 들의 공존과 융합, 직설적 어법, 대립적 구조, 작품의 내적 유사성과 긴밀성. 전달과 소통 면에서 두드러진 대화성과 청자 지향성, 시적 화자의 시점·어조·상대방의 다양한 변화. 작품 간 계열성 면에서 작품 간의 긴밀한 관련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언어·형식 면을 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그의 시의 의식과 내용이 언어·형식 면에서 어떻게 뒷받침되고 독자에게 어떻게 해석, 수용되는지에 대해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시에서 특히 부각되는 언어·형식 면과 관련되는 바 어학적 논의 대상이 될 만한 언어 현상들을 들어 본다. 내용 표현 면에서는 텍스트 구조상 서사·묘사 맥락과 외부 사태·내면 서술 맥락의 교차 및 대비, 구어·속어투의 분포와 기능, 세계·민족史上 두 힘의 대립을 반영하는 어휘·통사·의미·담화 면의 계열적·통합적 대립과 호응, 반복·변형과 평행성, 작품 내 통합적 결속성과 의미적 응집성, 특히 화자의 인지적 태도를 반영하는 지시사와 공간·시간어. 전달과 소통 면에서 대명사와 호격어, 화행과 종결어미, 시점의 변화와 推移, 대우법의 양상. 작품 간 상호텍스트성 면에서 일련의 작품 간 재수용과 개작, 작품 간의 폭넓고 유기적인 언어·형식적 관련 등이 주목된다.

이러한 언어 현상들은 여러 층위, 분야, 논제에 걸치는 만큼 구조주의, 변형 생성론, 화용론, 담화·인지론, 텍스트언어학 등 여러 방법론이 두루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필자의 관점에서 그의 시의 내용을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표현, 전달하는 데서는 특히 화용, 담화 현상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방법론으로도 화용론, 담화·텍스트론이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이미 졸고(1996)에서 신동엽 시의 담론 소통 면에 역점을 두어 대명사, 지시사, 화행, 상호텍스트성 등을 다루었다. 그러나 거기서는 「산에 언덕에」, 「깎대기는 가라」의 두 작품을 중심으로 그 구조와 의미 전반까지 다루어 그의 시 전반에 걸치는 화용, 담화 양상을 포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 보완의 일부로 졸고(2006)에서 일련의 시에 나타나는 채수용 및 개작 과정과 의미의 계열·대립적 양상을 살폈고, 졸고(2008)에서 인칭 대명사를 중심으로 대명사의 분포와 쓰임을 유형별로 논의했다. 그런데 졸고(2008)의 경우 3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에서 지시사를 다루기는 했으나 그의 시에서 지시사의 분포와 기능이 두드러짐에 비추어 논의와 자료가 매우 불충분하게 생각되었다. 이에 후속 작업으로 지시사의 문제를 특화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건상 그 중 지시사의 강조 기능에 주목해 지시사의 한정 지시 기능과 강조 기능의 차이와 관련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서 한정 지시 기능을 점검한 다음 특히 문맥과 상황, 시적 화자나 시인의 의도에 유의해 어떤 동기와 과정에 따라 강조 기능이 두드러지게 되는지 더듬어 본다. ‘이, 그, 저’계 지시사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논의 대상은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를 아울러 다룬다.<sup>1)</sup> 논의 순서와 내용은 2장 일상어에서의 강조 기능, 3장 신동엽 시에서 한정 지시 기능이 강조 기능보다 두드러진 경우, 4장 강조 기능이 한정 지시 기능보다 두드러진 경우, 5장 결론 들이다.

## 2. 일상어 지시사의 강조 기능

지시 대명사를 비롯한 지시사 표현의 주된 기능은 특정 대상의 존재를 한정해 지시하는 것이다. 대상 한정 지시는 시공간적 상황 속의 직시, 문맥 속의 언어·照應적 지시, 상념 속의 인지적 지시를 두루 포함한다. 그런데 지시사

1) 3인칭 대명사나 代用言도 포함해야 하나 이들의 쓰임에서는 강조 기능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미뤄 둔다.

표현의 쓰임 중에는 이러한 한정 지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나타난다. 이를테면 “그 뭐랄까?”, “저, 있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런 낭패가 있나?” 같은 예들에서 ‘그, 저, 그라, 이라-’는 명확하게 한정하기 어려운 대상이나 정황을 知覺, 인지해 그 모습을 나타낸다. “이 김철수로 말할 것 같으면”, “네가 만났다는 그 김철수라는 사람” 같은 예에서 ‘이, 그’는 이미 한정 지시된 대상을 새삼 강조한다.

한정 지시 외의 기능 중 강조와 관련해 그동안의 지시사, 代用語 연구를 보면 강조 기능이나 관련 현상에 대한 논의나 언급이 있었다.<sup>2)</sup> 이를테면 박영환(1991:57-58)에서는 “이 지구를 보라.”, “이 을지문덕을 본받아야 한다.” 같은 예문의 지시사 ‘이’의 기능을 강조로 본다. ‘지구’나 ‘을지문덕’은 유일한 존재여서 한정 지시가 잉여적이므로 강조로 해석되는 것이다. 또 修辭的 반복 구문 “영수는 합격했다. 그는 드디어 합격했다.”에서의 ‘그’의 쓰임도 주목했는데, 이런 문맥에서의 대명사 ‘그’는 선행어 ‘영수’에 조응함과 아울러 文 반복과 부사어 ‘드디어’의 첨가에 의한 점층 반복의 강조 효과에 호응, 참여한다. 주경희(1992:11)에서는 “TV는 일방적인 언어만을, 그것도 천박스럽고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다.”의 지시 대명사 ‘그것’의 기능을 그 생략 가능성에 유의해 강조로 본다. ‘그것’이 선행구 ‘일방적인 언어’에 불투명하게 조응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선행행 성분과 정상의 통사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명제 의미에 관여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때 선행 성분 ‘일방적인 언어’와 후행 성분 ‘천박스럽고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내용’ 간에는 전체와 부분, 주제와 초점 등에 유사한 의미 관계가 나타난다. 여기서 ‘그것’은 선행 성분을 전제이자 배경으로 삼고 그를 이어받아 뒤로 매개함으로써 후행 성분 내용을 강조, 초점화한다 하겠다. 그리고 ‘것’ 보문 구조에 지시 대명사 ‘그것’이 쓰인 구문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능하고 긴절한 활동은 지식을 획득하는 그것이라고 하겠다.”의 ‘그것’의 쓰임도 특기했다. 이 때의 ‘그것’은 보문 형성 통사 표지로 문법화되어 추상화, 형식화된 ‘것’에 지시사 ‘그’를 얹

2) 대용언의 강조 기능 관련 논의로 신지연(1998)에서는 “산호가 그렇게 많대요.” 같은 예의 ‘그렇게’의 기능을 비지시적으로 파악해 ‘매우’의 어휘 의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기갑(1994)에서는 이미 이러한 ‘그러하-’계의 쓰임에 대해, 문법화의 일환으로서 지시적 기능이 약화, 상실되는 반면 화자의 태도가 주로 강조로 표명되는 것으로 보았다.

어 본래의 어휘성과 구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관형절 내용을 인지적으로 실체화, 부각해 준다.

이러한 한정<sup>3)</sup> 지시와 강조 기능은 문학어에서도 나타나는데, 작가나 작품에 따라 그 쓰임의 분포와 기능이 더 두드러지거나 특화되거나 중요해 지기도 한다. 문학어의 경우 작품 언어의 의미 해석에서 작가의 주관성이나 작품의 맥락이 특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문학어의 지시사에서는 한정 지시의 쓰임이 더 주관화되거나 맥락상 특화되고 강조 기능의 쓰임이 활발할 것이라 짐작된다. 이 점에서 신동엽 시는 줄고(1996, 2008)에서 일부 다루었듯이 이러한 지시사의 쓰임의 경향성과 그 문학적 효과를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다음에서 그 양상을 살핀다. 특히 여기에서는 어떤 조건과 요인에 따라 한정 지시 기능을 배경으로 강조 기능이 부각되게 되는지에 유의한다.

### 3. 한정 지시 기능

일상어에서도 그렇지만 신동엽 시에서도 상황 직시와 조음 지시가 추이고 순연한 상념 지시<sup>4)</sup> 찾기 어렵다. 다만 시에서의 상황·장면은 시적 화자의 상념 세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고 지시사 선택에도 화자의 인지적 태도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념 지시의 측면 또한 심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화자의 상념 맥락과 인지적 태도가 강조 기능에 작용하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한정 지시 기능은 문맥과 시적 화자의 의도나 태도에 따라 다소 약해 지기도 해서 그 대신 강조 기능이 감지되기도 한다. 이때 한정 지시와 강조 중 어느 기능 쪽인지 어느 기능이 더 우세한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러한 기능들이 화용·담화·인지적 요인에 따라 탄력적, 가변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는 한정 지시 기능만이거나 그쪽으로 기우는 경우들을 상황 직시, 조음 지시 순으로 다룬다.

3) 여기에서 '한정성'은 外延 면에서 특정 사물 지시, 화용 면에서 화자와 청자가 공통 지시하는 특정 대상·정보·내용을 포괄하며 객관적으로 불명확해도 화자가 담화·상념 맥락 속에서 지시하는 특정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상념 지시는 관련 상황 속의 지시 대상이 확보되지 않은 채 화자의 상념 속에서 지시 내용이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 3.1. 상황 직시

그의 시에서 상황 직시는 우선, 지시사 관련 상황이 시 텍스트에 나타나 있는지 시적 화자에 의존해 해석되는지에 따라 크게 作中 상황 지시와 화자 상황 지시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그 지시 대상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지시 대상이 명확한지 불명확한지에 따라 그 지시성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작중 상황인지 화자 상황인지 또 주·객관성 여부나 명확성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그렇더라도 이러한 구별은 지시사의 쓰임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를테면 주관성, 불명확성은 상념의 개입과 관련해 화자 의도 관련 강조 기능의 인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의 내용 면에서도 객관성, 명확성은 역사·현실·공동체적 내용과, 주관성, 불명확성은 개인·내면적 내용과 호응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작중 상황 지시로서 (1)은 객관적이면서 명확한 경우, (2)는 주관적이면서 불명확한 경우, (3)은 화자 상황 지시로서 주관적이면서 불명확한 경우의 예들이다.

- (1) ㄱ. 八角亭에서 장안을 굽어보다가 / 갑자기 보리씨가 뿌리고 싶어졌다.  
/ 저 고층 건물들을 갈아엎고 그 광활한 땅에 / 보리를 심으면 ~  
(「서울」)  
나. 이 균스러운 부패와 享樂의 不夜城 갈아엎었으면 / 갈아엎은 漢江沿岸  
에다 / 보리를 뿌리면 / 비단처럼 물결칠, 아 푸른 보리밭. //  
(「4월은 갈아엎는 달」)
- (2) // 언제이던가 / 이 들길 지나갈 길손이여 // 그대의 소매 속 / 향기로운  
바람 드나들거든 / 아파 못 다한 / 어느 사내의 숨결이라고 / 가벼운 눈  
인사나, / 보내다오. // (「담배 연기처럼」)
- (3) // 해와 눈보라와 사랑과 呪文, / 이 자리 못 물고 / 굴러떨어져 왔음은  
/ 아직도 내 峰우리 치솟은 탓이었노니. // (「나의 나」)

(1)의 작중 상황은 시적 화자가 설정하기는 했지만 상황의 성격이 공공연하고 작중 맥락의 정보도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서, 상황 속 대상 지시 내용을 독자가 화자와 공유할 수 있다. (1ㄱ)에서 ‘저 고층 건물들’의 ‘저’는 ‘서

울'이라는 객관적 공간 속의 특정 대상물들을 현장적으로 한정지어 준다. (1)에서 '이 균스러운 ~ 不夜城'의 '이'도 '서울'의 포괄적 정황을 특정 景觀으로 한정 지시한다<sup>5)</sup>. 이러한 지시사의 쓰임은 객관적인 역사·현실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 장면을 제시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반면에 (2)의 작중 상황은 그 성격이 주관적, 개인적이고 작중 정보도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 (2)에서 '이 들길'의 '이'의 지시는 화자의 경험에 따르기 때문에 독자는 대상 지시 내용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러한 쓰임은 주관적이고 私的인 정황, 정서와 관련된 장면을 제시하는 데에 나타난다.

(3)에서 시적 화자는 내면의 決意를 토로하고 있어서, 작중 상황이 설정되기 보다 화자의 상념 속에 떠오르거나 기억되는 정황이 제시되는 데에 그친다. '이 자리'는 화자가 인간·시대 조건에 처해 자신이 지향하는 존재와 삶의 공간을 상정한 것으로서, 독자는 그의 인생관에 공감할 수 있을지언정 '이'의 고유한 공간성을 공유할 수는 없다. 이러한 쓰임은 한정 지시, 인지 면에서 화자의 상념에 의존적이어서 가장 주관적이고 사적인 세계를 그 자체로 직접 표출하는 데에 나타난다. 그렇다고 이를 상념 지시로 보지는 않는데 그 지시 상황이 현실에서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3.2. 조응 지시

조응 지시는 크게 지시 대명사와 명사에 얽히는 지시 관형사, 그리고 대응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의 시에서는 지시 대명사보다 지시 관형사의 쓰임이 선호된다. 지시 관형사의 경우 명사만으로 그 한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지시사의 기능은 한정 지시이다. 그런데 문맥 속에서 명사(구절)만으로도 그 한정 지시가 분명할 때에는 한정 지시를 좀더 명확히 강조해 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한정 지시 강조의 쓰임은 강조 기능으로 해석되는 용법의 초기 단계로 유의할 만하다. 한편 지시대명사의 쓰임 중에는 그 지시 대상이 포괄적이거나 비명시적이어서 지시 내용과 한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5) 이때 지시사는 인지 면에서는 '이, 저' 선택과 관련해 시적 화자의 주관적 태도로서 대상('고층 건물들', '균스러운 ~ 불야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나 한정 지시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해석된다.

도 나타난다. 이는 그 지시 내용이 자명하지 않고 시적 화자나 시인의 의도와 해석자의 추론이 관여되어 그 지시 내용이 상정된다는 점에서, 함축 기능의 초기 단계로 생각될직하다. (4)는 문맥상 명사(구절)만으로도 어느 정도 한정성이 인지되지만 다소 미흡해 지시사의 한정 지시 기능이 강조 기능보다 두드러진 예, (5)는 문맥상 명사(구절)만으로 한정성이 거의 확보되어 강조 기능이 분명하게 감지되는 예, (6)은 지시 대상이 포괄적이거나 비명시적인 예 들이다.

- (4) ㄱ. / 異邦人들이 대포 끌고 와 / 江山의 이마 금그어 놓았을 때도 / 그 벽 핑계삼아 딴 나라 차렸던 건 / 우리가 아니다 / (「祖國」)  
 나. // 그 반도의 허리, 개성에서 / 금강산 이르는 중심부엔 폭 십리의 / 완충지대, ~ //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제밤은 / 자다가 참 / 재미난 꿈을 꾸었어. // 그 중립지대가 / 요술을 부리데. //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제밤은」)
- (5) ㄱ. // 이슬비 오는 날. / 종로 5가 서시오관 앞에서 / 낯선 少年이 나를 붙들고 東大門을 물었다. // 밤 열한시 반, / 통금에 쫓기는 群像 속에서 죄 없이 / 크고 맑지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 (「鐘路五街」)  
 나. / 저 고층 건물들을 갈아엎고 그 광활한 땅에 / 보리를 심으면 그 이랑 이랑마다 얼마나 싱싱한 / 곡식들이 사시사철 물결칠 것이라. // (「서울」)
- (6) ㄱ. // 그날이 오기까지는 끝이 없을 것이다. / 崇禮門 대신에 金浦의 空港 / 화창한 반도의 가을 하늘 / 越南으로 떠나는 북소리 / 아랫도리서 목구멍까지 얼어놓고 / 섬나라에 굶실거리는 銀行소리 // 祖國아 그것은 우리가 아니었다. / 우리는 여기 천연히 발갈고 있지 아니한가. // (「서울」)  
 나. // 봄은 /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 오지 않는다. // 너그럽고 / 빛나는 / 봄의 그 눈짓은, / 제주에서 두만까지 / 우리가 디딘 /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 (「봄은」)

(4-1)에서 ‘그 壁’의 조응 내용은 선행 문맥에 동일 언어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고 관련 표현 ‘금그어’ 중 관련어 ‘금’이 되거나 관련 함축 의미 ‘금그어

놓은 결과 생긴 벽' 정도로 상정될 수 있다. 동일 언어 표현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뿔'만으로는 선행 문맥과의 조응 관계가 석연치 않아 '그'의 한정 지시 기능이 인정된다. (ㄴ)에서 '그 중립지대'의 조응어는 유의 표현 '완충지대'로서 역시 동일어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 조응 관계를 명확히 해 준다.

(5ㄱ)에서 '그 소년'은 맥락상 선행 문맥의 '(낮선) 소년'에 조응함이 명백하고 '소년'만으로도 표현이 성립되므로 '그'는 한정 지시를 기반으로 그 지시를 강조하는 기능이 감지된다. 이는 '소년'에 대한 認知度가 아직 약한 만큼 지시 사로써 그 동일 지시성을 확정하고 이에 한정 지시 강조 기능이 따르는 것으로 본다. (ㄴ)에서 '그 광활한 땅', '그 이랑이랑'도 선행 문맥에 동일 언어 표현은 없지만 바로 인접한 문맥상 '갈아엮은 결과 조성된 땅', '보리를 심은 밭의 골들' 정도로 상정되는 내용에 조응한다. 이 때에도 지시사 없는 표현도 성립되므로 '그'는 한정 지시 외에 각각 '(조성된) 땅의 의미와 크기', '밭의 모습'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겠다.

(6ㄱ)에서 '그것'은 선행 맥락의 여러 표현과 내용에 포괄적으로 불명확하게 조응하는데, 시 전체 맥락과도 관련해 '외세 의존·물리적 힘과 양태' 정도의 함축<sup>6)</sup> 내용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시의 주제와 관련해 시적 화자의 의도나 독자의 해석을 반영할 수 있는 추상적 의미 내용으로 부정적 내용을 함축하기 때문에 긍정적 부류로서의 '우리'와 대비된다. (ㄴ)에서 '그 눈짓'의 조응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대로 '봄이 오는 조짐을 나타내는 모습' 정도로 상정해 봄직하다. 이 때의 '그'는 '너그럽고 빛나는'에 조응할 수 있고 '눈짓'만으로도 표현이 성립될 수 있어서 포괄적 한정 지시에 강조 기능이 수반된다 하겠다.

#### 4. 강조 기능

앞의 조응 지시에서 보았듯이 지시사의 기능은 문맥에 따라 한정 지시 기능 외에 강조 기능이 부각, 수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지시사의 본래적

6) 주경희(1992:14)에서는 선행 문맥의 여러 내용 중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되 추론할 수 있는 특정 내용을 '그것'으로 표현한 예를 주목했다. 여기에서 함축은 그보다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가 좀더 일반적인 의미로 특정화되고 있다 하겠다.

기능이 한정 지시임에 비추어 한정 지시 기능이 어떤 문맥 조건 속에서 강조 기능 쪽으로 특화, 이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5)에서는 그 일반적, 기본적 양상으로, 조음 내용이 동일하거나 긴밀할수록, 또 명사(구절)만의 표현이 자연스러울수록 한정 지시 기능 위에 그 지시의 강조 기능이 부각되는 경향성을 보았다. 이는 대상의 한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지시사의 존재는 지시·외연 면에서는 잉여적이 되나 인지·내포 면에서는 강화 기능으로 작용하게 됨을 뜻한다.

그런데 한정 지시와 강조 기능이 맞물리고 강조 기능이 두드러지게 되는 문맥 중에는 통사·의미적으로 그 조건이 어느 정도 특정화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조건이 특화되는 만큼 한정 지시 기능 자체보다 그 강조 기능이 더 두드러지게 되고, 인지·내포 면 의미의 강조 기능도 더 많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제 다양한 문맥과 조건에 따른 이러한 쓰임들을 본다.

#### 4.1. 한정 지시에서 강조로 기능이 移行되는 문맥들

여기에는 조음 지시와 아울러 상황 직시도 나타나고, 지시 대상의 한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제 이들에서 어떤 문맥 조건 속에서 한정 지시 기능이 강조 기능으로 이행되는지 좀더 조건화된 요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사적 문맥 조건의 구문 유형으로는 인접 지시사 대응 및 반복 표현, 관계절 및 보문 표현, ‘~이 ~이다’ 兩초점 강조 구문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인접 대응 및 반복 표현으로는 (7)의 제시어 대응, (8)의 역행 대응적 어순, (9)의 선행절의 잠재적 대응, (10)의 지시사 수반 반복 구문 등이 나타난다.

(7) // 四月十九日, 그것은 우리들의 祖上이 우랄高原에서 풀을 뜯으며 陽달진 東南亞 하늘 고향 半島에 移住오던 그날부터 三韓으로 百濟로 高麗로 흐르던 江물, ~ 빛나는 양가슴과 물굽이의 燦爛한 反抗이었다. //

(「阿斯女」)

(8) / ~ 渤海는 바위에서 성긴 숲으로 숲에서 다시 불붙는 태곳적 산불로 어울려 목숨과 팔뚝의 불붙는 천지로 타오른 그날 임진난리의 우렁찬 외침을 귀 기울여 보아라. / (「阿斯女の 울리는 祝鼓」)

- (9) / 銀行을 하늘님으로 섬기는 자는 / 은행에 의해 / 미움을 하늘님으로 섬기는 자는 / 미움에 의해 멸망하리니, / 총 권 자를 붙잡히 여기는 자는 / 그, 사랑에 의해 구원 받으리라. // (「水雲이 말하기를」)
- (10) / 눈동자가, 그 깊고 먼 눈동자가, / 이 찬 겨울 천지 사이에서 나를 들여다 보고 있더라. // (「빛나는 눈동자」)

(7)에서 ‘四月十九日’은 문두에 제시되어 후속 내용에 대해 주제나 화제의 성격을 띠며, 설명·평언부로 문장 수준의 내용을 여럿 거느리는 점에서 담화 주제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 때의 주제는 구정보이기는 하나 의미·인지 면에서 새롭게 활성화된 초점어로서, 쉽표로써 후속 설명부와 분리되어 독립성을 얻고 바로 후행하는 지시 대명사에 조음되어 再認, 부각된다. 이 같은 제시어-대명사 구성은 강조 표현 방식의 한 가지로, 강세를 수반하는 주제 구성 ‘四月十九日’에 비해 형태·인지적으로 더 명시적이고 인지도가 강하며, 지시사가 관형적으로 수반되는 구성 ‘그 四月十九日’과도 어떤 통사·의미적 관련성을 지니는 듯하다.

즉 대명사 구성에서는 조음 내용과 대명사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재인 과정과 그 인지적 간격이 분명히 의식되는 데 비해 관형사 구성에서는 지시사와 조음 내용이 더 가까워져서 그 인지적 간격이 그리 의식되지 않는다. 또 조음 내용에 지시사가 후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지 순서임에 비추어 관형사 구성에서 지시사가 앞서는 것은 강조의 의도에 부응해 상념 속의 지시를 우선 내세운 데 따른 것이라 여겨진다.

(8)에서 ‘그날 임진난리’는 (7)의 경우에 준하는 ‘임진난리 그날’에 비해 조음 내용과 지시사 수반 명사구의 분리적 독립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점은 같되 지시사가 후행 위치에서 선행 위치로 바뀌어 있다. 이때 지시사 시간어 ‘그날’은 이미 지시 내용이 한정된 ‘임진난리’에 선행해 그에 역행 조음하는 有標的 어순으로써 후행 조음 시간어를 강조한다. 이 구성은 ‘그 임진난리’ 같은 지시 관형사 구성에 접근한 것으로서 (7)의 대명사 후치 구성과 지시 관형사 구성의 중간적 단계를 보인다 하겠다.

(9)에서 ‘그, 사랑’의 ‘그’는 (6)류에 준해 선행 문맥과 내용에 포괄적, 비명시적으로 조음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겠으나 그 조

을 내용을 찾아 상정하기 어렵다. 같은 聯의 내용 전개상 선행 관형절 ‘총 권자를 불쌍히 여기는’이 ‘사랑’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그’가 그 내용에 잠재적으로 조응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다만 이 때의 조응 지시는 그 조응 내용이 특정 ‘사랑’을 한정 지시한다기보다 ‘사랑’의 속성을 구체적 내포 의미이자 사례로 서술한 것이므로 ‘사랑’의 내포에 호응하면서 부가적으로 얹혀 ‘사랑’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는 셈이다. ‘그’ 뒤의 쉼표는 선행 내용과의 조응을 점검함과 동시에 ‘그’에 담긴 ‘사랑’의 내포를 환기함으로써 강조 기능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어 준다. 한편 쉼표 없는 지시 관형사 구성이 많은 경우 조응과 관계 없이 내포 의미 강조로 해석되고, (7), (8)이 분명한 조응의 바탕 위에 강조 기능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조응에 강조 기능이 부각되는 (9)는 (7), (8)류와 지시 관형사 구성 사이에 있는 중간적, 과도적 존재라 하겠다.

(10)에서 ‘눈동자가’는 그에 조응하는 지시사 ‘그’가 수반되고 추가 내용 ‘깊고 먼’이 관형절로 얹혀 확대 변형 반복된다. 그런데 이때의 ‘그’는 선행 조응어와 바로 인접해 있고 명사구 ‘눈동자가’도 반복되어 한정 지시 기능은 미약하며 오히려 관형절 내용과도 호응해 ‘눈동자’의 존재와 속성을 강조한다. 즉 반복의 修辭와 지시사 조응이 맞물려 강조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관계절과 보문 구조의 경우를 본다. 관계절은 한정 지시와 관련이 있어서, 이른바 제한적 관계절에서 관형절 내용·정보는 핵심 명사를 한정 지어 주는 구실을 하고 비제한적 관계절에서는 핵심 명사가 이미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형절은 정보나 내포 의미를 부가하게 된다. 이를 지시사의 강조 기능 면에서 보면, 한정 지시의 제한적 관계절이나 이미 한정된 비제한적 관계절에 지시사가 수반되면 한정 지시 기능이 잉여적인 만큼 강조 기능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하겠다. 그의 시에서 지시사가 수반되는 제한적 관계절은 약간 나타나며 대개 선행 내용과의 조응을 바탕으로 강조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지시사 수반 비제한적 관계절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보문의 경우는 제한성과 관련된 한정성 문제가 그리 거론되지 않았으나 지시사가 수반되는 경우 그 기능 양상은 관계절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보면 먼저 지시사가 관계절 핵심 명사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한정 지시를 전제로 강조가 나타나는 (11), 한정 지시는 미약하고 핵심 명사의 내포 의미가 강조되는 (12), 그리고 지시사가 관계절의 앞에 위치하는 (13), 보문 명사

앞에 지시사가 위치하는 (14) 들이 나타난다.

- (11) / 눈 사태속서 총 겨냥한 / 낮선 兵丁의 호령을 듣고 / 그 껍뻑한 눈속을  
/ 깊이깊이 빠지면서서 무릎이겨 기댄 / 그 少年의 마음을 나는 안다. //  
(「왜 쏘아」)
- (12) 애당초 어느쪽 패거리에도 총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知性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시늉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  
처럼 풍요로운 나라, (「散文詩 <1>」)
- (13) // 문경 새재 山幕 곁에 흰 떡 구워 팔던 그 유난히 눈이 맑던 避難少女도  
지금쯤은 누구 그늘에선가 지쳐 있을 것. / (「眞伊의 體溫」)
- (14) // 아기 뺨 어머니가 / 배가 고파, 애들을 재워 놓고 / 집을 빠져나와 /  
꿀꿀이죽을 찾으려던 그 마음을, / 고요한 새벽 흰 눈이 쌓인 그 벌판에서  
의 / 외로운 부인의 마음을 / 나는 안다. // (「왜 쏘아」)

(11)에서 ‘少年’의 지시 대상은 관형절의 구체적 정보로써 특정화되고 선행 문맥에서도 언급되어 이미 한정되어 있는 셈이므로 지시사 ‘그’의 한정 지시 기능은 거의 잉여적이다. 이 때의 ‘그’는 관형절 내용에 잠재적으로 조용해 지시 자체보다 ‘소년’의 행동 특성을 강조해 준다. 이에 비해 (12)의 ‘知性’은 그 지시 대상보다 내포 의미가 중요해서 관형절 내용도 한정 지시보다 ‘지성’의 행동 속성을 사례로 구체화하는 데에 관여한다. 따라서 ‘그’도 관형절 내용에 잠재적으로 조용하면서 ‘지성’에 내재하는 내포 의미를 강조, 환기한다.

(13)에서 ‘避難少女’의 지시 대상도 두 관형절의 구체적 정보에 따라 거의 한정되어 지시사 ‘그’의 한정 지시 기능 또한 잉여적이다. 그런데 이 때의 ‘그’는 첫째 관형절 앞이나 핵심 명사 앞이 아닌 둘째 관형절 앞에 위치함으로써 ‘피난소녀’의 외적 행동 특성보다 내재적 속성 쪽이 더 강조되게 된다. (14)에서 보문 명사 ‘마음’의 지시 내용도 관형절들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거의 한정되어 지시사 ‘그’의 한정 지시 기능은 잉여적이다. 이 때의 ‘그’도 관형절 내용에 조용해 지시 자체보다 ‘어머니’의 행동 관련 심리 특성을 강조하고 이로써 ‘마음’의 내포 의미가 강하게 환기된다.

국어의 강조 표현 구문 유형 중 분열문 관련 구문으로 ‘~(것)은 ~이다’ 구문 외에 ‘~이 ~이다’ 구문이 있다. 전자는 전제/주제 - 단언/ 초점의 의미·화

용 구조로서 繫詞 성분이 강조되는 데 비해 후자는 배타적 주제·초점 - 초점의 구조로서 양 초점 성분이 동시에 인지적으로 연계, 활성화되어 강조된다. 그의 시에서 지시사 수반 강조 구문으로는 후자에 속하는 (15)가 나타난다.

(15) // 길가엔 진달래 몇 뿌리 / 꽃 피 있고, / 바위 모서리엔 / 이름 모를  
나비 하나 / 머물고 있었어요 // ~ // 햇빛 맑은 그 옛날 / 후고구렷적  
장수들이 / 의형제를 묻던, / 거기가 바로 / 그 바위라 하더군요. //  
(「진달래 山川」)

위에서 강조 구문은 ‘햇빛 맑은 ~ 거기가 바로 그 바위라’로서 양 초점은 주격 겸 배타적 주제 성분 ‘거기가’와 계사 성분 ‘그 바위’이다. 이때 ‘그 바위’는 선행 문맥의 ‘바위 (모서리엔)’에 조응해 지시사 ‘그’의 한정 지시 기능이 인정되며 지시 강조 부사 ‘바로’가 선행해 대상 지시성이 강조된다. ‘거기’ 또한 화자의 상념 속에 상정된 특정 공간으로서 ‘거기’와 ‘바위’의 동일성 지시 인지가 두 대상을 특정화해 주는 의미 정보나 배경 지식에 근거함으로써 강조 의미에 관여한다.

의미·어휘적 문맥 조건으로는 한정 지시가 어려운 경우로서 시간이 불명확해서 비특정적인 시간어, 多數 또는 보편양화적이어서 비특정적인 量化語 표현 들을 들 수 있다. 그 예로 시간이 불명확한 ‘옛날’((16)), 不定 시간어 ‘언젠가’((17)), 다수어 ‘술하-’, 보편양화어 ‘모든’((18)) 등이 나타난다.

- (16) / ~ 그 少年의 念願이 맺어있는 그 철조망 동산에도 오늘 해는 또 얼마나  
다습게 그옛날 목화단 말리던 아낙네 입술들을 속삭여 빛나고 있을 것인가. //  
(「진이의 체운」)
- (17) // 내 고향은 아니었었네 / 그 언젠가 / 먼 산 바리 少女 떡 목판 이고  
섰던 / 영 너머 그 멀린 소문 들은 안개 都市. //  
(「내 고향은 아니었었네」)
- (18) ㄱ. // 하여 / 년 무덤속 가서도 모를 것이다 / 너 안 보는 자리서 / 찬  
돌 쓸어 안으며 / 그 술한 날 얼마나 통곡했는가 // (「너는 모르리라」)  
나. // 껌테기는 가라. / 漢拏에서 白頭까지 /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  
그, 모모든 쇠붙이는 가라. // (「껌테기는 가라」)

(16)에서 ‘옛날’은 우리 지난 역사상 한 時點이나 시기로서 그 시점이 불명확하고 시적 맥락상 시점의 명확성이 중요하지도 않아서 이때 ‘그’의 한정 지시 기능은 미약하다. 여기에서 ‘옛날’은 민족의 생활 정서가 비롯되고 담긴 시간으로서 우리가 현대사에서 현재 처한 정황과 호응, 대비된다. 이 때의 ‘그’는 그러한 과거로부터의 오래된 궤적을 강조하여 그 역사적 의미와 기억을 강하게 환기한다. (17)에서 ‘언젠가’ 또한 그 시점이 불명확하고 시점의 명확성이 중요하지도 않아서 이 때의 ‘그’도 한정 지시 기능은 미약하다. 그런데 ‘언젠가’는 ‘떡 목판 이고 섰던 소녀’ 같은 否定的 기억과 관련해 시적 화자의 뇌리에 그 시점이 각인되어 있으며, ‘그’는 그러한 인지 작용에 상응해 그 상념 속의 시점을 지시, 강조한다.

(18ㄱ)에서 ‘술한 날’은 다수의 날을 포괄하고 그 수량도 불명확해서 이 때의 ‘그’도 한정 지시로 해석하기 어렵다.<sup>7)</sup> 이 같은 다수어 표현이나 문맥에서는 지시사 ‘그’의 한정 지시 기능은 약해 지는 대신 수량의 다수성을 강조하는 기능이 두드러지게 된다. 그리고 이 때의 수량의 강조는 시적 화자의 행동과 감정의 강조로 이어져 그의 정서를 한껏 고조시킨다. (ㄴ)에서 ‘모오든’은 보편 양화사로서 대상을 남김없이 포괄하는 가운데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해 한정짓는 것은 불필요한 만큼 이 때의 ‘그’도 한정 지시로 해석하기 어렵다.<sup>8)</sup> 시적 맥락상 전체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그’의 기능은 전체성 강조로 생각되며, 모음의 장음 발음을 표기에 반영한 ‘모오든’으로 표현한 것 또한 전체성 강조에 상응한다.

## 4.2. 내용 강조

지시사의 기능은 대상의 한정성이 확보될수록, 그리고 한정성보다 대상의 내포 속성이나 수식 내용이 중요할수록 강조 기능 쪽이 부각되어 한정 지시 기능은 매우 미약해 진다. 그리고 이를 포함해 강조를 위한 지시사의 쓰임은

7) 다수의 날 전체가 집합적으로 지시, 한정되거나 화자의 상념 속에서 특정한 날들의 집합이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때에도 다수 날들의 개별성보다 전체의 집합성이 부각되어 한정성은 희석된다.

8) 다만 이 경우에도 (ㄱ)에서처럼 전체가 집합적으로 한정되거나 개별적 ‘쇠붙이’들의 집합이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시적 맥락상 한정성은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시적 화자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한정 지시의 객관성에 비해 주관화라 할 만하다. 대상의 한정성이 확보됨으로써 강조 기능이 부각되는 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보았다. 대상의 내포 속성이나 수식 내용과 관련되어 강조 기능이 부각되는 경우도 보기는 했으나 대개 한정 지시 기능이 병행되거나 맞물리는 경우였다. 이에 여기에서는 특히 대상의 내포 속성이나 수식 내용 강조 기능이 부각되는 예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내포 속성의 경우로, 한정 지시 강조를 배경으로 내포 속성이 부각되는 (19), 선행 문맥과 관련해 내포 속성이 부각되는 (20), 비교적 문맥으로부터 자유롭게 내포 속성이 부각되는 (21), 수식 내용 강조에 대상의 내포 속성도 호응하는 경우로, 수식어가 형용사인 (22), 형용사 관련 여러 형식인 (23) 등이 나타난다.

- (19) // 그 중립지대가 / 요술을 부리데. / 너구리새끼 사람새끼 곰새끼 노루새끼들 / 발가벗고 뛰어노는 폭 심리의 중립지대가 / 점점 팽창되는데, / 그 평화지대 양쪽에서 / 총부리 마주 겨누고 있던 / 탱크들이 일백팔십도 뒤로 돌데. //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제밤은」)
- (20) // 껌테기는 가라. /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껌테기는 가라. // (「껌테기는 가라」)
- (21) // 일어서야지, /양말 신은 발뚱 흥물 떨고 와 / 논밭 위 세워 논, 억지 있으면 / 비벼 꺼야지, / 열번 부러져도 그 사랑 / 발은 다시 일으켜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 // (「발」)
- (22) ㄱ. // 겨울은, / 바다와 대륙 밖에서 /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 이제 올 /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 우리들 가슴 속에서 / 움트리라. // (「봄은」)  
 ㄴ. // 새해엔 / 아내랑 꼬마아이들 손 이끌고 / 나도 그 깊은 우주의 바다에 빠져 / 달나라나 한 바퀴 / 돌아와 봤으면, // (「새해 새 아침을」)
- (23) ㄱ. // 그러나 나는 서울을 사랑한다 / 지금쯤 어디에선가, 고향을 잃은 / 누군가의 누나가, 19세기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 그 포도송이같은 눈동자로, 고무신 공장에 / 다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 (「서울」)  
 ㄴ. / 이제 올 /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 우리들 가슴 속에서 / 움트리라. // 움터서, /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 눈녹이듯 호물호물 / 녹여 버리겠지. // (「봄은」)

(19)에서 ‘그 평화시대’는 ‘그 중립시대, 중립시대’와 동일어 표현은 아니지만 그에 겹쳐 조용되어 그 한정성이 상당히 인정된다. ‘그 평화시대’의 ‘그’는 조용어에의 한정 지시를 강조함과 아울러 추상적 개념 관련 표현 ‘평화시대’의 내포 의미를 부각해 주는 것이다. 그 결과 ‘평화’의 내포 의미는 후행 문맥의 ‘총부리, 탕크들’과 더 강하게 대비되고 또 ‘뒤로 돌데.’의 反轉과도 더 극적으로 호응한다.

(20)에서 ‘그 아우성’의 ‘그’는 선행 어구 ‘東學年 곧나루’에의 조용 지시 강조로 해석될 수 있고 아울러 ‘아우성’의 내포 의미를 부각한다. 그런데 이 경우 속격 구성과도 관련해 단순 지시어 ‘그’나 ‘그것’만으로 표현이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 선행 어구에의 조용 지시라는 해석도 매우 어색하므로 ‘아우성’의 내포 의미 강조 쪽으로 기운다. ‘의’ 다음 쉽표 또한 선행 어구에의 조용 지시를 보강해 줌과 아울러 ‘아우성’의 내포 의미 강조를 확고히 한다. (21)에서 ‘그 사랑’은 시 전체나 앞뒤 맥락에서 그 대개의 내용을 상징해 볼 수는 있으나 매우 포괄적이고 불투명해서 ‘그’의 기능 또한 한정 지시와는 거리가 있다. 이때 ‘그 사랑’의 의미 내용은 일반적, 추상적이어서 ‘사랑’의 내포 속성에 가깝고 ‘그’는 그 내포 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sup>9)</sup>

(22ㄱ)의 ‘그 매운 눈보라’에서도 특정한 ‘눈보라’의 한정 지시 강조보다 ‘겨울’의 엄혹한 시련을 대표하는 ‘눈보라’의 속성이 중요하므로 ‘그’는 미각 형용사의 감각 이미지로 비유된 ‘눈보라’의 흑독함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단순한 한정 지시의 ‘그 눈보라’가 문맥상 생경한 데 비해 지시어 없는 ‘매운 눈보라’는 자연스럽다는 점도 주목된다. (ㄴ)의 ‘그 깊은 우주의 바다’에서도 특정한 ‘우주의 바다’의 한정 지시 강조보다 그 무한성이 문제가 되므로 ‘그’는 수직적 차원 형용사로써 ‘바다’에 비유된 ‘우주’의 深大함을 강조한다. 이 때에도 단순한 한정 지시의 ‘그 우주의 바다’가 어색한 데 비해 지시어 없는 ‘깊은 우주의 바다’는 자연스럽다.

(23ㄱ)에서 수식어에 ‘같다’ 직유 표현을 수반하는 ‘그 포도송이같은 눈동자’는 주어가 ‘누군가의 누나’로서 ‘그’의 한정 지시 강조는 잉여적이고 직유로 묘사한 ‘눈동자’의 청순함을 강조한다. 이 때에도 단순한 한정 지시의 ‘그 눈동자’

9) 이 때의 의미 내용이 그의 시 세계 속에서 좀더 일반적인 특정 의미로 고정되게 되면 특정 문맥 속에서의 강조 기능을 벗어나 좀더 일반적인 고정 함축 의미에 가까운 쪽으로 이행한다 하겠다.

는 어색하며, 주어 '누군가의 누나'는 비특정적 표현으로 '그'가 '노동자'의 내포 속성을 강조하는 것과 호응한다. (ㄴ)에서 속격 구성을 수반하는 '그 미움의 쇠붙이들'의 '그'도 특정한 '쇠붙이들'의 한정 지시 강조보다 그것이 상징하는 증오와 대립, 폭력성을 강조하는 기능이 부각된다. 이 때에도 선행 문맥에서 조응 내용을 찾기 어려운, 단순 한정 지시의 '그 쇠붙이들'은 어색한 반면 지시사 없이 '쇠붙이들'의 내포 속성을 표현하는 '미움의 쇠붙이들'은 자연스럽다.

이상으로 지시사에 명사와 그 수식어가 후행하는 문맥에서 특히 대상의 내포 속성이나 수식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이 부각되는 것을 보았다.

## 5. 결론

문학 작품의 언어 현상은 궁극적으로 문학의 관점과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문학 언어의 詩學 또는 시문법적 현상과 논리, 그 생성과 창조 과정은 일상이 문법이나 어학적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문학어는 일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면도 두텁게 보이며, 문학어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국면도 일상어와 무관하기보다 그를 개신, 극복, 승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학어에 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해석 과정에서는 일상어 문법과 어학적 방법도 한 접근법으로 점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 작가의 경우 그의 문학어 사용에서 일련의 언어 현상이 양적, 질적으로 두드러진 쓰임을 보이면 그 언어 현상은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동엽 시에서 그 쓰임이 두드러진 지시사를 대상으로 특히 그 한정 지시 기능과 강조 기능의 차이와 관련 양상을 살폈다. 그래서 한정 지시 기능이 상황 직시, 조응 지시 면에서 나타나되 여러 문맥 유형들과 장면, 시적 화자의 의도에 따라 한정 지시 강조 기능이 뚜렷해 지거나 지시 강조 기능 외에 내포 의미 강조도 부각되는 것을 보았다. 이때 일상어의 지시사의 쓰임에 나타나는 강조 기능이 그 기반이 되면서 신동엽 시에서 그러한 쓰임이 더 활발하고 그의 시 언어 논리에 따라 강조 기능이 다양하게 특화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사의 두드러진 분포와 강조 기능이 그의 시 세계나 시 언어의 성격과 관련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시 문맥에서 강조 기능의 양상을 보면서 일상어에서도 강조 기능의 세부가 더 밝혀질 국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여건상 이 글의 논의와 관련되는, 지시사의 함축 의미, ‘이, 그, 저’의 인지적 대립과 화자의 평가적 태도, 공간과 시간의 문제 등을 같이 다루지 못한 점도 짐이다. 불충분한 대로 아래에 이글의 주 논점을 요약해 둔다.

1. 기존 연구의 지시사 강조 기능 관련 논의에서는 한정 지시의 잉여성과 문맥적 요인이 지적되었다. 일상어에서의 한정 지시 기능은 신동엽 시에서 더 주관화, 특화되고 강조 기능은 특히 활발하게 나타나 두드러진 문학적 효과를 보인다. 이때 강조 기능은 한정 지시를 배경으로 일련의 문맥 조건 속에서 부각되는 경향을 띤다.
2. 한정 지시 기능은 주로 상황 직시와 조용 지시로 나타나고, 상념 지시는 찾기 어렵다. 시적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다. 상황 직시는 작중 상황 직시와 화자 상황 직시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경우,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경우, 후자는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경우 들로 나타난다. 조용 지시는 조용 내용이 동일하고 지시사를 제외한 명사(구절)만으로 표현이 성립될수록 한정 지시, 그렇지 않을수록 지시의 강조 기능이 수반되는 경향을 보이며, 포괄적, 비명시적 지시의 경우는 함축 의미로 해석된다.
3. 한정 지시 기능은 특정 문맥 유형들에서 강조 기능으로 이행, 부각된다. 즉 통사적 문맥으로, 인접 대용 및 반복 표현, 관계절 및 보문 표현, ‘~이 ~이다’ 兩초점 강조 구문 등, 의미·어휘적 문맥으로 비특정적 시간어, 다수·보편 양화어 표현 등이 나타난다. 이때 대상의 한정성이 확보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맥에서 강조 기능이 부각되고 문맥에 따라 한정 지시 강조 외에 대상의 내포 속성이나 수식 내용 강조도 나타난다.
4. 지시사에 명사나 그 수식어가 후행하는 문맥에서 특히 대상의 대포 속성이나 수식 내용이 시적 의미 맥락상 중요할 때에는 한정 지시 기능이 미약해 지고 내포 의미나 내용 강조 기능이 지배적으로 부각된다.

주제어 : 한정 지시 기능, 강조 기능, 상황 직시, 조용, 지시 강조, 내용 강조

## 〈참고문헌〉

- 김수명 편(1981), 『김수영 전집 2 산문』, 민음사.
- 김창완(1995), 『신동엽 시 연구』, 시와 시학사.
- 김태자(2008), 「대명사에서 ‘인지칭(認知稱)’의 설정에 대해」, 『한국어학』41, 한국어학회, 257-282면.
- 김홍수(1984), 「시의 언어 분석 시론」, 『어학』11,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67-82면.
- 김홍수(1996), 「신동엽 시의 담화론적 해석-〈산에 언덕에〉, 〈꿍데기는 가라〉를 중심으로-」, 김완진 외, 『문학과 언어의 만남』, 신구문화사, 855-880면.
- 김홍수(2006), 「신동엽 시의 상호텍스트성」, 『어문학논총』특별호,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3-36면.
- 김홍수(2008), 「신동엽 시의 화용 양상 -대명사의 쓰임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7,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45-68면.
- 박영환(1991), 『지시어의 의미 기능』, 한남대학교 출판부.
- 신지연(1998), 「국어 지시용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갑(1994), 「그러하- 의 지시와 대응, 그리고 그 역사」, 『언어』19-2, 한국언어학회, 455-488면.
- 이승규(2008), 『김수영과 신동엽』, 소명출판.
- 장경희(1980),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16-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67-184면.
- 주경희(1992), 「국어 대명사의 담화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bstracts】

## Referential and Emphatic Functions of Demonstratives in the Poetry of Shin Dong-yeop

Kim, Heung-soo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definite referential and emphatic functions of demonstratives in the poems of Shin Dong-yeop, particularly the transfer of referential functions to emphatic functions. Methodologically based on pragmatics and discourse-text analysis, special attention is directed to poetic context and the intentions of poetic narrators. Major points are as follows:

Demonstratives' definite referential functions become more subjectified and specialized in Shin's poems than in ordinary language. Their emphatic functions also become active to the effect of generating impressive literary impact. Referential functions come out as situational deixis and anaphoric reference, and situational deixis appear as textual situation and narrator situation deixis. The more redundant the contextual definiteness becomes, the greater referential emphasis the anaphoric reference is accompanied with.

Contextual types, in which the referential functions transfer to emphatic functions, comprise adjacent pro-forms and repetitive expressions, relative clauses, cleft constructions, unspecific temporal words, and universal quantifiers. In contexts in which nouns or modifiers follow demonstratives,

connotative meaning or content emphasizing functions become dominant.

keywords : definite referential function, emphatic function, situational deixis, anaphor, referential emphasis, content emphasis

이 논문은 2009년 6월 26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8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